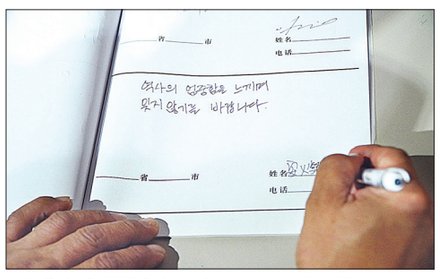

안중근 의사 흉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하는 모습.


중국 하얼빈역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순례단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순례단이 안중근의사기념관 관람 후 후기를 남겼다.


731부대죄증진열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순례 출발 전 버스에서 찍은 기념 사진.

선조들 독립열망 서린 곳서 '한반도 평화' 꿈꾸다

조계종 민추본, 북중접경지역 · 백두산 평화순례 현장

8월 29일~9월 1일…60여 명 동참
항일운동 발자취 걸으며 계승 다짐
"아픔의 역사 되풀이 되지 않아야"

중국=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선조들의 독립열망이 배어있는 만주지역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성찰하는 뜻깊은 순례가 열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평화순례에 나섰다. '제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현장순례 일정이다.

순례에는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과 사무총장 덕유 스님을 비롯해 민추본 이사 지일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민추본 집행위원 정응 스님(장흥 보림사 주지),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8기 불교지도자과정 수료생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은 "그간 무더위 속에서 (제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실내강좌를 모두 수료하고 평화순례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향후 여러분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불교 교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활동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알찬 순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사무총장 덕유 스님도 "북중접경지역은 우리 민족 고대사의 주 무대이기도 하면서 항일운동의 근거지이다. 단순한 유적지와 관광지를 찾아보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통일을 생각하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서 두 시간여를 날아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순례단은 첫 일정으로 동북열사기념관을 방문했다. 1933년 9월부터 1945년까지 하얼빈 경찰청으로 쓰인 이곳은 일제의 총칼에 맞선 수많은 항일열사가 감금돼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핍박당한 장소다. 해방 후 중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동북열사기념관'으로 명명, 100여 항일열사의 영정을 세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 모셔진 100위 가운데 32위는 허형식, 박진우, 양림 등 조선인 항일열사 영정이다.

순례단은 항일운동 역사가 기록된 전시물을 살펴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동국대 북한학과에 재학중인 김민경 학생은 "항일운동을 펼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있게 살피고 정치, 이념 등에서 벗어나 항일운동의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호텔 회의실에서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의 '만주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와 분단, 그리고 평화통일의 미래'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순례단은 다음날인 8월 30일,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생체실험, 세균전의 증거를 전시한 731부대죄증진열관을 찾았다. 거대한 관 모양으로 지어진 죄증진열관을 들어서자 '너희들(일본군)의 죄는 부정할 수 없다. 그 모든 악행, 죄의 증거가 여기 진열돼 있다'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일본군의 전쟁 범죄의 참혹한 실상을 관람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얼빈역에 자리한 안중근의사기념관 탐방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순례단은 안중근 의사 흉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담은 각종 사료와 이토 히로부미 저격 지점의 바닥 표지석 등을 둘러본 순례단은 "역사의 엄중함을 느끼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독립만세" 등의 후기를 남겼다.

조미애 민추본 행정관은 "일제강점기 피해는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는 아픔의 역사"라며 "일제의 전쟁범죄와 피해 역사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국가 운영 전시관이 세워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의 흔적들을 되찾고, 독립운동의 역사 바로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두산에 새긴 통일 염원…분단 상처 어루만지다

민추본, 8월 31일 백두산 순례로 일정들 마무리
맑은 천지서 평화 발원 "자유롭게 장군봉 오가길"


백두산 천지에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순례단.

"북파의 천지도 물론 좋지만, 자유롭게 동파를 넘나들며 백두산을 조망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바랍니다."(김미정)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아온 분단의 역사가 나, 우리의 역사임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박은정)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는 8월 31일 '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평화순례' 마지막 일정으로 민족의 이야기를 품은 백두산 북파 일대를 찾아 평화통일과 한반도의 화합을 기원했다. 북파에서는 북한에서 오르는 동파(장군봉)의 장엄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순례단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백두산 산문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일정을 동행한 현지인가이드는 "이날 백두산을 찾은 관광객은 1만5000여 명"이라며 "1년 중 파랗고 맑은 천지를 볼 수 있는 건 고작 20일뿐인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했다.

다시 몇 차례 버스를 갈아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오르자 해발 2750m를 자랑하는 백두산의 위엄이 눈앞에 펼쳐졌다. 백두산 정상 부근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은 하늘과 푸른 천지가 순례단을 맞았다.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돼 한참이나 천지를 바라본 순례단은 저마다의 소망이 천지에 닿길 기도했다.

특히 동파를 넘어다본 순례단은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평화 통일에 대한 바람이 천지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 퍼지길 간절히 발원했다.

순례 동참자 임차순 씨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남북의 객관적인 역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하면, 그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람은 장백폭포로 이어졌다. 장백폭포는 천지의 물줄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끝없이 흐르는 물줄기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계마저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순례단은 다시 고속철을 타고 장춘역으로 이동해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내영 기자

